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 Sermon Notes**

Title: “7. The faithful church ”

Scripture: Revelation 3:7-13

Date preached: December 7<sup>th</sup> 2025

Scripture: Revelation 3:7-13

7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is holy, He who is true, “He who has the key of David, He who opens and no one shuts, and shuts and no one opens”’: 8 “I know your works. See, I have set before you an open door, and no one can shut it; for you have a little strength,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9 Indeed I will make *those* of the synagogue of Satan,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lie—indeed I will make them come and worship before your feet, and to know that I have loved you. 10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ersevere,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11 Behold, I am coming quickly! Hold fast what you have, that no one may take your crown. 12 He who overcomes,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and he shall go out no more. 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And *I will write on him* My new name.

13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

7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사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상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Review**

We are nearing the end of this short sermon series that has focused on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These seven churches were all real entities that existed in Asia Minor (modern day western Turkey) at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AD. It was a time in which it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be a follower of Christ. There were many pressures bearing down on these early Christians. There was pressure from the state to worship the emperor as god. There was antagonism, and sometimes outright hostility from pagan religions.

In some places it was the Jews who were stirring up trouble and making life difficult. Early Christians also had to deal with intense social pressures to conform and fit in. It was a heathen world and Christians were very much the odd ones out. All of these things made life tough for the first century church. So the Lord Jesus sent each of the churches a personalised letter. A letter to either encourage them to keep on in the faith, or to address what was wrong in the church so that it could change and get back on track.

Today we will look at the letter sent to the 6<sup>th</sup> church; the church in Philadelphia. Unlike the letter we looked at last time this letter contains nothing negative. Jesus levels no criticism at this church.

But before we get into all that let's briefly review last week's letter.

Last time we looked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Sardis.

Sardis had an illustrious history. It was once the capital city for the Kingdom of Lydia. A rich and prosperous kingdom enriched by the gold that flowed through the Pactolus River. With its imposing and near impregnable hill-top acropolis the city was at one time held in high esteem. By the first century however it had been in a state of decline for some time. It now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city of lazy, self-indulgent and sensual people. A place in which people were happy to bask in the glow of what once had been but not all that concerned about the future.

This description sadly describes the state of the church in Sardis. As I told you a moment ago the Lord Jesus had nothing good or positive to say about this church. The only mildly positive thing he says is that they have “a name” or a “reputation.” People passing by or judging by worldly (human) standards thought that the church in Sardis was alive and well. It appeared to be serving God effectively in that city.

It's a useful reminder to us today. Just because a church offers an extensive program of events or activities does not necessarily mean it is a church that pleases God. Quantity does not always equate with quality. This was certainly the case with Sardis. When Jesus carefully examined the church, and their fruit He was not impressed. His assessment was that the church in Sardis was DEAD! It was peopled by zombie Christians. They looked alive at least from the outside but really on the inside where it matters most they were deceased.

Now, technically speaking they are still doing Christian things. But unfortunately none of them met God's standards. What they were doing was not pleasing to the Lord. As I explained last time the church in Sardis was good at starting things, but not so good at finishing them. They therefore found themselves in a dire situation. Unless they took drastic action even their pitiful efforts would come to nothing and the church will cease to exist altogether

Now some might read these words and think that Jesus is acting rather like a difficult employer. That He was being overly fussy and demanding something that was wholly unrealistic given the circumstances in Sardis. You may well of had the misfortune during your working life to work for a boss who was never happy. No matter what you did it was never good enough. Your efforts were not what they wanted, or did not meet their expectations. This is not how we should read and understand Jesus's words here. If we think this we are wholly misunderstanding Jesus intent here. The Lord Jesus you see is speaking out of love and care. He doesn't want His precious church to stumble and fall. So His words are designed not to push down or discourage but quite the opposite. Imagine Him saying, “Come on, I love you and I want you to do better.” That's how we should properly understand Jesus' words.

What are the Sardians to do in order to avoid disaster? Jesus calls upon them to remember their first love for Him and for the gospel. They are to repent or turn from their sinful behaviours and refocus on Him. If they do these things then there is still hope.

The letter ends with Jesus reminding the church that not all of them were a disappointment. There were a small number of believers who were pleasing to Him. They had run the Christian race well and would be rewarded.

Today we going to look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짧은 설교 시리즈가 거의 끝나 갑니다. 일곱 교회는 모두 서기 1 세기 말 소아시아(현재의 터키 서부)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디방면에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제국의 압력, 이교 종교로부터의 반감,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따르고 적응하려는 강렬한 사회적 압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당시는 이교도 사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 세기 교회의 삶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각 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계속 서도록 격려하는 내용이기도 했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 즉 빌리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편지와는 달리 이 편지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데는 찬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팍스로스 강을 따라 흐르는 금 덕분에 부유하고 번영했던 왕국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거의 난공불락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아크로폴리스 덕분에 한때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 세기 무렵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게으르고 방종하며 관능적인 사람들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만각하며 행복해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묘사는 사데 교회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말씀은 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세상적인(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데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행사나 액티비티를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이 항상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데 교회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교회와 그 열매를 면밀히 살펴본신 예수님은 사데 교회가 죽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좀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는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데 교회는 일을 시작하는 데는 능했지만 마무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의 보잘것없는 노력조차 수포로 돌아가 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마치 까다로운 고용주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데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간간하게 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 중에 행복하지 않은 상사 밑에서 알아야 하는 불행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결코 상사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노력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중한 교회가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더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데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과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악된 행동에서 돌아켜 그분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인들이 실망스러운 존재는 아니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끝맺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잘 마쳤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Let's begin by locating the city of Philadelphia on our map of Asia Minor. We are leaving Sardis and will need to travel approximately 45 km (28 miles) south east. In the first century the city was located on the borders of three countries. Lydia, Phrygia and Mysia. As you can see Philadelphia is the second furthest inland city of the seven. It was positioned along the major highway which connected the east to the west. In fact the city was known as the “Gateway to the east.” This was because anyone travelling from east to west, or vice versa would have to pass through Philadelphia.

Given its location on the “edge of civilisation” the city considered itself to be a “missionary city.” It was not of course promoting the gospel message, but rather the culture and ideas of the Greeks (Hellenism). Interestingly the city was also known as “Little Athens” because it was full of temples and places of worship. I shall speak more on this shortly.

Today Philadelphia has undergone a name change. It is known as Alashehir which means “multicoloured” and has a population of around 105,000 people. A number of the remains of ancient Philadelphia can still be seen today. The best preserved and most impressive ruin is the Roman amphitheatre.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the history of Philadelphia.

소아시아 지도에서 필라델피아의 위치부터 찾아 보겠습니다. 사데를 떠나 남동쪽으로 약 45km(28 마일) 이동합니다. 1 세기에 이 도시는 리디아, 프리기아, 무시아 세 나라와 국경을 접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일곱 교회 중 가장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고, 실제로 이 도시는 "동쪽의 관문"으로 불렸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라델피아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변두리"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는 스스로를 "선교 도시"로 여겼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사상 헬레니즘을 전파했습니다. 이 도시는 신전과 예배 장소가 많아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부분은 곧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필라델피아는 "다채로운 multi-coloured"을 뜻하는 알라셰히르(Alashehir)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구가 약 10 만 5 천 명입니다. 고대 필라델피아의 유적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잘 보존되고 인상적인 유적은 로마 원형 경장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The history**

Philadelphia, unlike some of the other cities we have looked at is not an ancient one. It dates back only to around 150 BC. A king from Pergamos named Attalus II founded it. It was named “Philadelphia” which means “brotherly love or brother lover.” This was Attalus' nickname. Apparently he was known to be very devoted to his brother Eumenes II.

Whilst we are on the topic of the cities name I have to tell you that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it had several. It was briefly known as “Neocaesarea” (New Caesar) during the reigns of the Roman emperors Caligula and Claudius. When the emperor Titus Flavius Vespasian took the throne it changed its name again to “Flavia” in his honour. It then reverted back to plain old Philadelphia until the Ottoman conquests in 1390.

Standing on a 200 metre high terrace Philadelphia was an impressive place. The fact that it was located at a junction where five significant highways intersected enabled it to become a major transportation and trading hub.

The city was also blessed to be located on the edge of a very fertile plain. Well, in truth it was both a blessing and a curse. You see that region is highly volcanic and prone to earthquakes. Volcanic ash

makes for rich and fertile soil. It meant that farmers were able to grow an abundance of fruits and vegetables. In particular Philadelphia became famous for her grapes and fine wines. Many of the surrounding hillsides were devoted to the grape industry.

The volcanic activity in that area also meant that there were a number of medicinal hot springs. People travelled great distances to enjoy a soak in the springs around Philadelphia. But the volcanic activity also posed a serious and constant threat. The historian Strabo (64 BC – 21 AD), said that Philadelphia was "full of earthquakes." We know from history that the city was completely destroyed by an earthquake in 17 AD. This same quake also destroyed Sardis and ten other cities in that area. But this was only one of many such natural disasters. In fact earthquakes and tremors occurred on a regular basis which led to the city being deva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Today we can construct buildings that are able to withstand all but the most severe quakes. The ancients did not have this knowledge. In the ancient world when the ground shook the buildings collapsed. It meant that the people of Philadelphia lived in a constant state fear. They had to be ready to run out into the countryside whenever a quake seemed imminent.

In terms of the cities appearance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buildings and layout of Roman period Philadelphia. It is the least well known of the seven cities due to the fact that a limited amount of archaeological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As I mentioned to you before the remains of a theatre have been discovered, and coins show that near the end of the 2nd century AD an imperial temple existed.

Let me conclude my introduction by saying a few things about religion in Philadelphia.

## 역사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살펴본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단지 기원전 150 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가모 출신의 아탈루스 2 세가 이곳을 세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형제애' 또는 "형제애인"을 뜻합니다. 이는 아탈루스의 별명이었는데, 그는 동생 에우메네스 2 세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필라델피아는 역사상 여러 이름을 가졌습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의 통치 기간에는 "네오카이사레 Neocaesarea "(새로운 황제)로 잠시 불렸습니다.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즉위하자 그의 이름을 가리는 의미에서 "플라비아 Flavia"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후 1390 년 오스만 제국의 정복 전까지는 다시 예전의 필라델피아로 불렸습니다.

200 미터 높이의 테라스에 서 있는 필라델피아는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다섯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위치한 덕분에 주요 교통 및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매우 비옥한 평야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진이 잦았습니다. 화산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고, 농부들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도와 고급 와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도시 주변 언덕의 많은 지역은 포도 산업에 집중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약효가 있는 온천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주변의 온천에서 몸을 담그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은 심각하고 끊임없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기원전 64 년-서기 21 년)는 필라델피아가 "지진이 왕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서기 17 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진으로 사데와 그 지역의 다른 열 개의 도시도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자연재해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지진과 진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도시가 여러 차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강력한 지진을 제외한 모든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지식

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진이 임박하면 언제든지 도시 밖으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도시의 외관과 관련하여 로마 시대 필라델피아의 건물과 바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고고학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곱 도시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장 유적이 발견되었고, 동전을 통해 서기 2 세기 말경에는 제국의 신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종교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며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Religion

As you may have gathered from the name changes the city held a special devotion to the imperial cult. It was a place in which the Roman Caesar was enthusiastically promoted as being god. It also had the usual plethora of temples and shrines to the pagan gods and goddesses of the Greeks and Romans. However, the most important god in Philadelphia was Dionysus. As you may recall from your school days he was the god of wine, fertility, festivity, and theatre. His worship as you can probably imagine involved heavy drinking and much debauchery. Despite the presence of the imperial cult and the numerous pagan religions we cannot be certain that Christians faced a great deal of hostility or persecution.

In terms of the Christian church once again we do not know when it began or who started it. Philadelphia is only mentioned twice in the bible and both times occur in Revelation (Rev 1:11, 3:7). It seems likely that the Apostle Paul played some part in the founding of the church. Perhaps he visited the city personally or else sent out a missionary whilst he was in Ephesus.

With that useful background now in place let us turn to the letter itself.

### **종교**

도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황제 숭배에 열렬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신이라고 열광적으로 추앙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이교 신들을 위한 수많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는 포도주, 다산, 축제, 그리고 연극의 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과음과 방탕으로 만연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수많은 이교 종교가 존재했던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대감이나 박해를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빌라델비아가 단 두 번 언급되는데, 모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요한계시록 1:11, 3:7). 사도 바울이 교회 설립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도시를 방문했거나, 에베소에 있는 동안 선교사를 파견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유용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is holy, He who is true, ‘He who has the key of David, He who opens and no one shuts, and shuts and no one opens’”:**

The letter opens by stating that it is directed to the pastor or elder who is overseeing the church in Philadelphia. He is to carry this letter to his congregation and deliver Christ's message to them.

Then, as is the formula to which we have now become accustomed we get the unique reference to the Lord Jesus. This letter remember is being delivered by Jesus to John.

The first two descriptions we read are that Jesus is **holy** and **true**.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Jesus is holy? The word holy has two definitions. Firstly, holiness refers to absolute moral purity and an uncompromised, unsurpassed standard of righteousness. Only God can achieve such a standard. Human beings due to our inherited sin nature can never reach perfection. To be perfectly pure and holy is something only God can achieve.

Secondly the word “holy” means to be “set apart” or “different from the common or ordinary.” We often think about the church in this way. It's not a “normal building.” It is set aside as a place of worship therefore we act and treat it differently to other places. We treat the church, I hope with reverence and respect.

We all know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s different or set apart from the common. There was never anyone quite like Him. He was wholly unique being both fully man and fully God. The scriptures tell us that He lived a life of sinless perfection and therefore always remained pure and holy. This is why God is often described throughout the scriptures as being holy (Isa 57:15, Psl 22:3, 1 Per 1:16, Rev 4:8). So what Jesus telling us here is that **He is God**. This message is coming directly from God.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Jesus is true?

John of course was a Jew and was shaped by Jewish thinking. But he was also schooled and knowledgeable in Greek thinking and culture. So he may be employing the concept of being true from either understanding. The Greeks actually possessed two words for “truth” or something being “true.” The one used here (*alethinos*) means real or genuine. So in this context he means that Christ is the real and true Messiah. He's not an imitation or fake. He is the true revelation of God.

The Hebrews understood “true” in the sense of faithfulness. We use it to mean this today when we say that someone is being true to someone else or to some ideal. So here it means that Christ is true and faithful to God's covenant. At all times, and in all ways He acted faithfully doing the Father's will.

We then read about Jesus possessing the key of David and being able to open and close doors. To understand the idea being presented here we need to think ab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keys in the ancient world. Today at least here in Korea key use has diminished greatly over the past decade. In fact, I no longer carry around a bunch of keys. All the doors I have to enter require an entry code. In my youth we all had heavy bunches of keys which were easy to lose or forget. In the ancient world important buildings might only have one or two keys. The key to the treasury or castle would be entrusted only to someone highly important and trustworthy.

The bible provides us with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You may well remember the story of Eliakim. He was a royal steward serving in the court of King Hezekiah. He received the “key” of Hezekiah's household and with it exercised the full authority of the king (Isa. 22:20-25). So this imagery in one sense emphasises Christ's authority, but it also goes beyond this.

In the Jewish world the Levites and chief priests had custody and control of the temple key (1 Chron 9:27). They controlled who could or could not enter. The Jews claimed that since they were the true people of God that they held the key to David's house. But Jesus reminds us here that He has the key and the authority to use it. He is the door (John 10:7). This means that He is the one who controls entrance to the Kingdom of God. He opens it to those God in His divine wisdom had chosen to save (the elect). He closes it to those who have rejected His gift of salvation.

Since Jesus is God no one has the power or authority to go against what He has decreed.

## **7 빌리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시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사되**

이 서신은 빌리델피아 교회를 감독하는 목사나 장로에게 보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목사는 이 서신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처럼 주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달하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묘사는 예수님이 **기록하고 holy 진실하다 true** 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록 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함은 절대적인 도덕적 순수함과 티함하지 않고 능기할 수 없는

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기준에 이르십니다. 인간은 유전된 죄성으로 인해 결코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순수하고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되다" 또는 "평범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장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경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며 구별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전적으로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기에 항상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사 57:15, 사편 22:3, 베드로전서 1:16, 요한계시록 4: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 He is God** 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까요?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헬라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익숙했고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에서 진실하다는 개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실제로 "진실"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alethinos'는 진짜 또는 참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참된 메시아임을 의미합니다. 모방 또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실 true"을 신실함 faithfulness 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이상 ideal 에 충실하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구절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에서 열쇠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10 년 동안 열쇠 사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열쇠 문치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드나드는 모든 문에는 출입 코드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는 잃어버리거나 깜빡 잊기 쉬운 목직의 열쇠 문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건물에 열쇠가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금이나 성의 열쇠는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스기야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왕실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스기야 왕궁의 "열쇠"를 받아 왕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사 22:20-25).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은 성전 열쇠를 보관하고 관리했습니다(대상 9:27). 그들은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를 통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므로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문입니다(요 10:7).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자제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시기에 아무도 그분이 정하신 것을 거역할 능력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8 "I know your works. See, I have set before you an open door, and no one can shut it; for you have a little strength,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The verse begins with a simple statement. Jesus knows what the church in Philadelphia has been doing. It's works, and the motivations behind them are transparent to the Lord Jesus. Most

significantly He finds nothing about the church to condemn or rebuke.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is ancient church was perfect. No place filled with human beings could ever be perfect. But here in Philadelphia the church is doing what it should be doing. Jesus is pleased.

We then read about the church having an **open door** that Christ in effect controls. As I told you in the introduction Philadelphia was known as the “gateway to the east.” Or the “door-way” that one passed through to enter the barbarian lands of the east. Philadelphia was established to be a missionary city. It's purpose was to send out people to convince the surrounding nations that Hellenism was a good system to adopt. Jesus here is encouraging the believers that they too are to act with missionary zeal. They are to use the “open door” that Christ has provided to share the gospel. I will come back to this subject in my closing.

There may be another sense or meaning behind this concept of an “open door.” It seems probable that Christians in Philadelphia were being excluded from the synagogue. The door was effectively closed in their face. This would have been greatly discouraging to Jewish Christians. So perhaps Jesus' words here may be seen as being an encouragement. They are not to worry. They still have the opportunity to enter God's kingdom despite their exclusion from the synagogue.

That the church in Philadelphia has, and is continuing to prosper is perhaps surprising. We are told here that they had **little strength**. This is perhaps a slightly misleading translation. It rather suggests that they were a weak or impotent church. This was not the case. What is really meant here is that they were small in size and not rich. As we know size and money gives you power and influence. The church in Philadelphia had neither. But they didn't allow this deficiency to hinder their work. They obeyed God's Word and stood boldly upon His name. This means that they were both committed to Christ and to living lives that properly reflected Him and His teachings.

Often small churches will use their size as an excuse for not being active. They allow their size to become an obstacle that hinders their progress or ambitions. What do we sometimes hear small churches say. “It would be good to do this or that.” Or, “We ought to support this organization or charity. However we don't have the people or the resources to be able to do it.” This attitude limits how God can work through us. If we ever find ourselves thinking this way perhaps we should look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Though they were small in numbers and poor in resources they lived and served in a way that both honoured and pleased our saviour.

### **8 불자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간단한 진술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주 예수님께서 환히 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대 교회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은 어디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기뻐하십니다.

그런 다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에 대해 언급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는 "동쪽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동쪽의 아만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선교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은 주변 민족들에게 헬레니즘이 좋은 제도임을 설득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선교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열린 문"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개념 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라델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당 문이 사실상 그들의 눈앞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낙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격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번성했고, 현재도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들이 약하고 무능한 교회였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된 의미는 그들이 규모 면에서 작았고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다 사피 규모와 돈은 권력과 영향력을 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둘 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이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 위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삶을 사는 데 전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종종 교회 규모를 핑계 삼아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깁니다. 때때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말하기를 "이런저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또는 "이런 저런 단체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제한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규모가 작고 자원도 부족했지만, 구주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섬겼습니다.

**9 Indeed I will make *those* of the synagogue of Satan,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lie—indeed I will make them come and worship before your feet, and to know that I have loved you.**

This is the second time in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that the "synagogue of Satan" is mentioned. It was referenced previously in the letter to the church in Smyrna. It is the fourth time that Satan's name is mentioned (Revelation 2:9; 2:13; 2:24).

As I said to you when we looked at the letter to Smyrna it was apparent that some Jews at that time were making life unbearably hard for Christians.

Now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is is not intended as a blanket reference to all of Judaism, or all Jewish people. The opinions of Jewish people regarding Christianity varied. Some were open and welcoming of Christians and their beliefs. They saw the followers of Christ as being an offshoot from Judaism. Others were neutral. They were neither for or against believers in Christ. Still others were openly hostile. They would do all they could to stop the spread of this new belief system. Picture the Apostle Paul. He was zealous in his efforts to stamp out the followers of this new "heretical way." It is this latter group that Jesus is speaking about here. A specific group of hostile Jews living in Philadelphia.

The problem with these people was very simple. They were not real Jews. They were Jews in name only. They claimed to be loyally obeying and serving God but in truth they were not. The word "Jew" comes from the name "Judah," which means "praise." These Philadelphian Jews did not truly praise God because they rejected His Son and persecuted His followers. They were actually followers of Satan and lived to serve him.

How did this persecution manifest itself? It is not specified here but it seems likely as I mentioned before that they were excluding Christians from attending the synagogue. It also seems as though they lied or made false accusations against believers in order to get them into trouble with the authorities. It's also possible that they lied to the Christians to try and make them follow Jewish practices. That they were what is known as "Judaizers." Whatever the case they certainly made life hard for the church in Philadelphia.

However the church was not to worry. Jesus gives them an amazing promise. The promise was as follows. One day some of the very Jews who were persecuting them would come and bow down at their feet. What does bowing at someone's feet represent? Well quite obviously bowing at someone's feet depicts abject, total defeat and submission. Defeated foes in battle bow at the feet of the victor in the hope that they might be spared. The Philadelphian church's enemies would be utterly vanquished, humbled, and defeated. The imagery evoked here derives from the Old Testament. In a number of places we find examples of Gentiles bowing down to the believing remnant of Israel (Isa 45:14; 49:23; 60:14). They are doing this because they have come to the realisation that God loves His church. They are sorry for what they have done and how they have treated God's followers. In bowing down they are showing repentance and seeking admittance into God's Kingdom.

The takeaway here then is as follows. The faithfulness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ould be rewarded by the salvation of some of the very Jews who were persecuting it. What an amazing event that would be.

Let us read on.

###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탄의 회당"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요한계시록 2:9; 2:13; 2:24).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볼 때 말씀드렸듯이,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전체나 모든 유대인을 일괄적으로 자칭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신앙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유대교의 분파로 여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중립적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신앙 체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새로운 "이단적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들은 바로 후자의 집단, 즉 빌리델비아에 살던 적대적인 특정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Jew"이라는 단어는 "찬양"을 뜻하는 "유다 Judah"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빌리델비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박해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사탄을 섬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박해는 어떤 식으로 가해졌을까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정부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관습을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유대 주의자들 Judaizers"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빌리델피아 교회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비참하고 완전한 패배와 복종을 상징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적들은 살아남기를 바라며 승리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빌리델피아 교회의 적들은 완전히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약성경에서 유래합니다. 여러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엎드리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사 45:14; 49:23; 60:14).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과 하나님의 제자들을 대했던 방식을 후회합니다. 그들이 몸을 굽혀 회개를 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은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구원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계속 읽어 보시다.

**10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ersevere,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11 Behold, I am coming quickly! Hold fast what you have, that no one may take your crown.**

There is a further promise that Jesus gives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The promise is that their dogged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will be rewarded. Because they remained committed to

Jesus and stayed faithful to what they were called to do the Lord will keep them from the **hour of trial**. This hour of trial we are told will come and test all those living on the earth. What you may be asking is the “hour of trial?”

The “hour of trial” is a common theme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Matt 6:13; 24:21, Mark 13:5-14, 2 Thess 2:1-12, Rev 7:14). Most conservative biblical scholars believe that what is in view here is the tribulation period. This seven-year period marks the end of this world and ushers in the millennial reign of Christ. This verse is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believers will be **taken out** of the world in the rapture prior to the seven-year tribulation beginning. This is what those who hold to the pre-tribulation view believe.

Some of course disagree and argue that what is written here is solely directed to a church in Asia Minor at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It is therefore intended to comfort them about some unspecified future time of hardship. They are to take hope knowing that God will either preserve or protect them from this time or else keep them faithful through it.

Such a position I believe is difficult to defend. Jesus speaks about the “whole world” coming under trial not just the area around Philadelphia or even Asia Minor in general. As I said to you when we looked at the Book of Daniel it is hard to take comfort at the thought that believers will have to endure all, or even part of the tribulation. The great comfort we have is that God will spare His people by keeping them out of the horrors of the tribulation period.

So with believers gone those who are left dwelling upon the earth at this time are unbelievers. It is these people who will be tested.

Jesus then tells the church in verse 11 that He is **coming quickly**. To understand what is meant here I need to briefly unpack the Greek. The word used for quickly here is *tacho* (tack-oo). Depending on the context it may refer to “being imminent,” “arriving without delay” or “happening at any time.” The meaning therefore is that Jesus' return will happen “quickly or suddenly,” but not necessarily “a short time from now.” This is clearly the case because the church in Philadelphia received this message nearly 2000 years ago!

However recognising the fact that Christ's return is imminent, and could happen at any time should keep those in Philadelphia and indeed us on our toes. Whilst they wait Jesus urges the believers in Philadelphia to keep a firm grip on the truth and on their loyalty to Him. By doing so they would stop the enemy from grabbing (stealing) their crown, or literally their eternal reward. Revelation 2:10 defines this crown as the “crown of life,” or as the Greek text literally reads, “the crown which is life.”

The ancient Greeks were very fond of athletic contests. Today athletes compete for medals but in the Greek world the victor was awarded a laurel crown. This was very different to a crown placed upon the head of a king or prince. This crown was given by birthright. It required no effort to earn it. But the winner of an athletic contest has to train, prepare, follow the rules, run with purpose and of course win the race. The victors really earned their laurel crown. This is the kind of crown in view here. One that the believer must run hard and struggle for.

So Jesus is warning the Philadelphians to run hard and ensure that they get all of the eternal rewards to which they are due.

At the end of His life, Paul testified that he had finished the race and anticipated the crown of righteousness as a reward from the Lord (2 Timothy 4:7–8). We, too, are running a marathon that requires discipline, diligence, and patient endurance. We must keep our eyes on Jesus and not allow ourselves to be distracted. Upon completing the race successfully, we will receiv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at a wonderful thought.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발리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강한 결단과 인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 the hour of trial 를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시험의 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시험의 때"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공통된 주제입니다(마태복음 6:13; 24:21, 마가복음 13:5-14, 데살로니가후서 2:1-12, 요한계시록 7:14).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때가 **환난기**라고 생각합니다. 7 년의 이 기간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예고합니다. 이 구절은 7 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믿는 자들을 휴거를 통해 세상에서 데려갈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바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1 세기 말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고난에 대해 그들을 위로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산살하도록 지켜주시실 것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는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발리델비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전체만이 아니라 "온 세기" 이 시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이 환난의 전부, 심지어 일부라도 견뎌야 한다면 위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환난의 공포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에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떠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11 절에서 자신이 **속히 오실** coming quickly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ἔρχομαι (tacho)'입니다. 이는 문맥에 따라 "임박한 being imminent", "지체 없이 도착하는 arriving without delay", "언제든지 일어나는 happening at any time"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또는 갑자기" 일어날 것이지만, 반드시 "지금으로부터 금방" 일어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리델비아 교회가 거의 2000 년 전에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발리델비아 사람들과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리델비아 신자들에게 진리와 그분께 대한 충성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완수가 그들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상급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 장 10 절은 이 면류관을 "□□□□"으로 정의합니다.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 the crown which is life"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동 경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놓고 경쟁하지만, 그리스 세계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왕이나 왕자의 머리에 쓰여지는 왕관은 매우 달렸습니다. 왕관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훈련하고, 준비하고, 규칙을 따르고,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경주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승자는 진정으로 월계관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바로 그러한 면류관입니다. 믿는 자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발리델비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달려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상을 받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삶의 마지막에 자신이 경주를 마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디모데후서 4:7-8). 우리 역시 훈련과 부지런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12 He who overcomes,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and he shall go out no more. 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And I will write on him My new name.**

If you've ever visited some of the historic sites in Italy, Greece or Turkey one thing you will quickly notice is that in terms of building structures very little remains. If you are lucky you might see some steps, a partial wall or the foundation stones.

In order to really understand what you are looking at you must consult an artistic recreation of what the building once looked like. However what you will often see is majestic pillars or columns rising up into the air. These strong columns designed originally to support the weight of the building are frequently all that is left standing.

I noticed this a lot when I spent a summer working in Athens. You could be wandering around the city streets and suddenly come across a vacant city lot with just two or three columns rising up out of the ground. They were all that was left of a once impressive structure. Pillars then are symbolic of stability, permanence and immovability.

This particular imagery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 people of Philadelphia. As I told you in the introduction the city was highly prone to earthquakes. As the city collapsed around them the only thing left standing were often the pillars.

Jesus offers these committed Christians in Philadelphia this same strength. Because He is with them they will be able to remain standing when everything around them crumbles. He tells them that He will make them pillars in God's temple. This speaks of having a place of permanence with the Lord, and of being safe and secure in His presence. The Philadelphian believers lived in uncertain times and in an uncertain place. But one day they would know true safety and security. We also read that they will go out no more.

Again this imagery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se people. When an earthquake hit Philadelphia the people rushed out into the country. It was far safer to be out in the open fields than in the city where you were likely to be crushed by falling masonry. But the promise Jesus gives them now is that **they shall go out no more**. They will no longer need to scurry away in fear. Those who place their faith and trust in Christ will be safe in Him and will not need to go out to seek safety and shelter.

Pillars were also seen as symbols of honour and prestige in the ancient world. Significant people would be honoured by having their name engraved on a pillar, or even having a pillar constructed in their honour. The name would be carved on this impressive column for all to see and admire. It's rather like us putting up a plaque or sign to acknowledge people today.

When King Solomon built the temple he had his workers construct two massive pillars for the porch. Solomon named these pillars "Jachin," meaning "establish" and "Boaz," meaning strength (I Kings 7:13-21). The overcomers in Philadelphia were promised future positions with Christ which suggest that He has established them and given them the strength to endure.

We are then told that believers will have three names written on them; the name of God, the name of the New Jerusalem, and the new name of Christ. Having the name of God written upon them identifies a person with God. We know that an object belongs to someone when we see their name written or engraved on the object. Aaron the high priest in the Old Testament had a golden plate on his forehead with the inscription "**Holiness to the Lord**" engraved upon it (Ex 28:36-38). It signified that He and the priestly class he led belonged to the Lord.

God's people mentioned in Revelation will also have his name written on their heads (Rev 7:3; 14:1). Having God's name upon us indicates that we belong to Him.

Having the name of the city written on them implies citizenship along with all that such citizenship entails in God's Kingdom. As we know even today the perks of being a citizen only comes to those who are resident in that particular place. This city, called New Jerusalem, will come out of heaven

after Christ judges the world and makes a new heaven and earth (Rev 21:10). Believers in Christ will be welcomed to live in this city for all eternity.

Finally bearing the name of Christ indicate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 He marks out all those that He loves and who belong to Him.

What a wonderful encouragement this would have been to those in Philadelphia, and indeed the other cities that received letters. No matter what difficulties or hardships they faced they could trust in God. It reminded them that they were special and precious to the Lord and that He would pour out His blessings upon them. We too can take great comfort from these eternal truths.

Let us close our study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12 아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의 유적지를 방문해 보셨다면 건축물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계단, 벽 일부, 또는 주춧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건물의 옛 모습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작품을 참고해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장엄하게 솟아오른 기둥들입니다. 원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설계된 이 튼튼한 기둥들만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름에 아테네에서 일하면서 그런 광경을 자주 보았습니다. 도시 거리를 걷다 보면 갑자기 땅에서 두세 개의 기둥만 솟아 있는 빈 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한때 인상적이었던 건축물의 남은 전부였습니다. 기둥은 안정성, 영속성,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는 지진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기둥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필라델비아의 이 한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시기에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들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처를 얻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필라델비아의 신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와 불확실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진정한 안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미지 또한 그 사람들에게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필라델비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시외로 달아났습니다. 무너진 석조 건물에 깔릴 위험이 있는 도시보다 넓은 들판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안전할 것이며, 안전과 피난처를 찾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둥은 명예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기둥에 이름을 새기거나, 심지어 그들의 명예를 기리는 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기둥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 명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할 때, 헌관을 위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도록 일꾼들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둥들을 “세운다”라는 뜻의 “야긴 Jachin”, 그리고 “힘”을 뜻하는 “보아스 Boaz”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열왕기상 7:13-21). 필라델비아 교회의 아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미래의 지위를 약속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인내할 힘을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압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 아론은 아마에 "여호오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이라는 글이 새겨진 금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출 28:36-38). 이는 그와 그가 이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들의 머리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계 7:3; 14:1).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도시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권과 시민권이 수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의 특권은 그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계 21:10).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도시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은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고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에 있던 사람들과 편지를 받은 다른 도시 교인들에게 놀라운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 특별하고 소중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알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원한 진리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해 봅시다.

### 13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

The letter ends in the way we have come to expect. All seven end in the same way; listen and learn. The words written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were all positive. Wouldn't we all love to be in churches that received this kind of encouragement and praise from God. In order to do so we must learn from their example. They followed two basic principles. Firstly, they built their church upon a solid foundation. That rock solid base is Jesus' name and His Word. They didn't build it upon themselves and what they could do. May we all seek to build our church on such a base.

Secondly, despite being small in size and lacking resources they remained active, strong and resolute. The church refused to be defined by their size or apparent weaknesses. They achieved this by depending on Jesus and not upon themselves for their source of strength. May we, too, trust in Christ and rest upon Him.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conclude this study series by looking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Laodicea.

###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편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끝났습니다. 일곱 편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데,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든 내용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는 교회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보기에서 배우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그들은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둘째,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활동적이고 능력있고 단호했습니다. 교회는 규모나 겉으로 보이는 약점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의 원천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를 성취했습니다. 우

리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reading.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Grasping the open door**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once approached the “Prince of Preachers” Charles Haddon Spurgeon after the Sunday service. The man felt a deep conviction to go and share the gospel message. But, he was unsure about how and where to go about it. Spurgeon sat the man down and they began to chat. The man explained the issue and Spurgeon listened intently. When the man said he did not know to whom he could witness Spurgeon raised a hand and stopped him.

“What is your occupation?” he asked.

“I'm an engine driver on a train,” replied the man.

“That's interesting,” said Spurgeon, “I take it that there are at least two people operating your train.”

“Yes,” replied the man, “I work alongside a man who shovels coal into the engine.”

“And is the man who shovels coal a Christian?” asked Spurgeon.

“I really don't know,” said the man.

“Well then,” said Spurgeon, “Go back and start with him.”

What this story highlights is that God always opens a door of opportunity wherever we are. We really don't have to go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share Christ. Christians sometimes think that missionary work (sharing the gospel) has to be undertaken in some far off foreign country. This of course does need to be done. I'm not saying that this work is not vital. But the truth is that the mission field is wherever we find ourselves. It's all around us. Unless you happen to live in a Christian enclave there are lost and needy people all around you.

The problem is that Christians are often dull and unaware of the opportunities around them. So I'm urging you today to become sharp. To be more attentive or alert to the doors that God is opening up. There are so many situations or conversations we have that allow us the chance to talk about Jesus in a natural and not forced way. When we are lazy or half asleep we miss the chance.

What doors may God be opening for you right now? Who is He encouraging you to go to with the gospel? Let's be ready to grasp the opportunities when God opens the door.

#### **1. 열린 문을 붙잡다**

한 교인이 주일 예배 후 “설교자의 왕자 Prince of Preachers” 찰스 해든 스펀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스펀전은 그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고, 스펀전은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스펀전은 손을 들어 그를 막고 말했습니다.

“직업이 뭐죠?” 스펀전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차 기관사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스펀전이 말했습니다.

“가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최소 두 명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기관차에 석탄을 퍼 넣는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럼 석탄을 퍼 넣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스펀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 말했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규모가 작고 자원은 부족했지만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이 언제나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덕분에 그들은 변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교회는 핑계를 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규모가 작을지라도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결코 작은 교회는 핑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다.